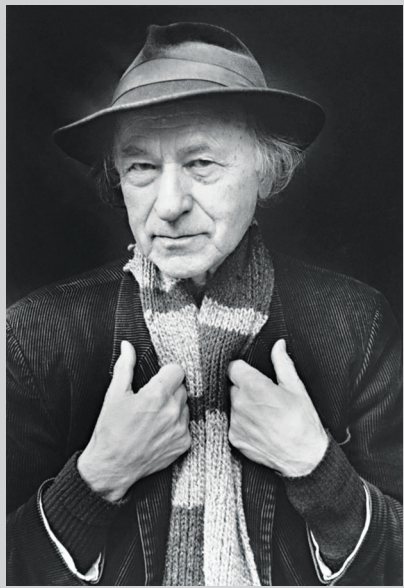


# #근현대 #친환경 #미디어아트 새해 미술전시 키워드



요나스 메카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술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2022년에도 계속된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 그리고 '친환경, 자연 그대로!'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새해 새 전시일정을 확정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예술적 감동과 위안이 필요한 지금,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참신하고 굵직한 전시 기획을 통해 관람객을 맞을 계획이다. 지난 1992년 문을 열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미술과 미술관이 쌓아 온 30년 간의 역사적 궤적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전이 오는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린다.

광주 미술의 흐름 속에서 발견한 지난 30년간 현대미술의 변화와 다원화 현상을 다루고, 매체와 세대를 초월한 30명 내외의 작가 구성을 통해 지역미술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한다. 또 전국 최초 국립미술관으로서 당시 미술계의 큰 기대와 함께 전국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던 기존의 정신을 기리고자 작품을 기증했던 타 지역 작



임직순 작 '포트'

2022년 미술계 기획·전시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임직순 탄생 100주년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아이 웨이웨이전:인간미래

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호남 서양화 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임직순 탄생 100주년 기념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열린다. 호남미술 아카데미 구축을 위해 매년 지속 추진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임직순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교육자로서 지역미술계에 미친 영향 등을 통해 지역 미술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오는 7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한국 근현대 조각의 선구자인 권진규 특별전 '예술적 산보'가 열린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50-70년대 그의 작품 200여 점과 함께 아카이브 자료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시-샌안토니오시 교류 40주년 기념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

개월간 열리며, 아방가르드 영화의 선구자인 요나스 메카스의 탄생과 함께 대한민국과 리투아니아 수교 30주년 및 백남준과 플럭서스 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가제)' 전시는 11월에 개막된다.

오는 10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됐던 이견희 컬렉션 1,488점 가운데 6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이상범, 변관식,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40여명의 작품을 통해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전개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근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미래의 역사 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은 오는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과 독일 칼스루에 ZKM 공동주최·제작한 것으로, 1960년대 초창기 미디어작품부터 최근 인터랙티브와 NFT(대체불가능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아트 60년사를 총망라하는 전시다. 전시는 미디어·신체·초상, 미디어와 풍경, 미디어·건축·공간, 미디어의 고유영역, 예술 매체로서의 컴퓨터 등 6개 섹션으로 구성해 예술매체의 변화의 궤적을 통해 사회의 관습과 관념, 패러다임의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 빌 비올라, 제프리 쇼, 부르스 나우만 등 64명 작가의 95개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개관 30주년을 기념, '광주시립미술관 30년사'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특선' 도록을 통해 광주미술의 역사와 이를 지켜온 이들의 발자취를 집대성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친환경, 자연 그대로!'를 주제로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

오는 5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업전시 '아이 웨이웨이전:인간미래'가 열린다. 전시는 회화, 사진부터 영화, 설치, 건축 공공미술, 전시기획, 출판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아이 웨이웨이의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이밖에 ACC지역·아시아작가전 '아시아 환경 미술제(가칭)'(8-9월), 미디어아트 결합 전시 '별빛마당(가칭)'(9-12월), 융복합 전시 '디지털이모션(가칭)'(10월) 등도 잇따라 전시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오재열

탁인석

탁현수

## 국제PEN광주문학상 오재열·탁인석

올해의 작품상 수필가 탁현수

국제PEN광주시위원회(회장 박신영)가 제18회 국제PEN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오재열, 탁인석 작가를 선정했다. 올해의 작품상은 탁현수 수필가가 차지했다.

오재열 시인은 최근 시조전집 '사모곡'을 발간, 그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모성의 시적 형상화의 집대성이자 완성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탁인석 수필가는 세평에세이집 '문학

이라는 마법'을 통해 문화와 문학에 대한 마더더스라 불릴 만큼 문화 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자세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작품상에는 탁현수 수필가가 선정됐다. 견고한 작품성 유지와 진지한 창작 태도로서 수필로서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됐으며, 이에 못지않게 수필 이론에 대한 탐구력 또한 남다르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지현 기자

## 캔버스에 녹여낸 프로방스 일상

프랑스 작가 조세트 메르시에  
국내 개인전 '동화적 시간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남프랑스의 일상을 다채로운 색을 통해 표현하는 프랑스작가 조세트 메르시에의 한국에서의 첫 번째 개인전 '동화적 시간들'이 오는 24일까지 광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의 2022년 첫 번째 기획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선혜영 작가의 노력으로 열렸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트 메르시에에 마르세유 국립 보자르에서 수학했다.

1956년부터 살롱 드 앙데팡당에 작품을 출품한 이후 1969년 파리에서의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다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현재 프랑스 라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마르세유 출신인 그녀가 지난 1965년부터 2021년까지 약 50여 년간 그린 작품들로 구성됐다.

조세트 메르시에에 자신의 일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프랑스의 삶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품 속에 녹여냈다.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과 더불어 풍부한 자연을 배경으로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프로방스의



조세트 메르시에 작 '부뤼셀의 오줌싸개 소년 동상'

풍경과 인간미 있는 일상의 모습 속에 작가 특유의 무미도 찾아볼 수 있다.

그녀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가보지 않은 프로방스의 햇살이 느껴지는 듯 따스하다. 마르세유 구 항구에 정박된 요트들과 그곳의 상징인 높은 언덕의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 마르셀 파농의 산이라 불리는 가를리앵의 언덕과 오반느의 오래된 시계탑 등이 그렸다.

프로방스는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강력한 색채와 동화적 회화 표현으로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적 거처가 된 프로방스의 매력을 조세트 메르시에의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 FUNIS

##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